

# 여수,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 개장... 야간관광 거점 조성

## 원도심 넘어 국동항까지 야간관광 확대... 지역 상권 활력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3일부터 국동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 공간은 ▲피크닉 존 ▲먹거리 프리마켓 존 ▲버스킹 존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먼저 '밤바다 피크닉존'에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바다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수엔' 앱 가입자를 대상으로 돛자리(피크닉 매트)를 대여해 준다.

식도락가를 위한 '먹거리 프리마켓'은 여수 특산물과 로컬 식재료를 활용한 '여수 미식회' 콘셉트로 운영된다. 국동향 활어 컵물회, 여수 삼섬어묵, 돌산갓김치떡볶이, 여수

동백꽃차 등 여수 특색을 담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주 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귀를 즐겁게 할 '국동향 밤소리 버스킹' 공연이 열린다. 라이브 음악과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 인플루언서 특별공연 등 총 42회의 다채로운 무대가 마련될 예정이다.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은 6월 13일부터 6월 말까지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시범 운영하며, 7월 1일부터는 매일 상설 운영으로 전환된다.

시 관계자는 "국동향 수변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야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야간경관을 한층 보완해 올여름 국동향에서 여수 밤바다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동향 한밤의 피크닉'은 여수 밤바다를 배경으로 피크닉, 먹거리,

버스킹이 어우러진 야간 관광 콘텐츠로 운영된다.

시민과 관광객은 돛자리 대여를 통해 여유롭게 밤바다를 즐길 수 있다. 먹거리 프리마켓에서는 여수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로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버스킹 존에서는 매주 다양한 공연이 열려 야간 분위기를 더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 상설 운영으로 확대된다. 여수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관광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올여름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이유빈 기자



국동향 수변공원 전경 사진

/여수 시청 제공

# 순천시, 「2026 순천만장 애인인권영화제」 개최

순천시는 오는 17일과 18일 양일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순천시문화건강센터 3층 다목적홀에서 「2026 순천만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는 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개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영화제 첫날인 6월 17일에는 영화 '나는 보리'와 '학교 가는 길'이 상영되며, 18일에는 '지구엔 온 첼리스트', '몽고반집', '마루와 내 친구의 결혼식' 등 3편이 상영된다. 관람객들은 이틀간 총 5편의 작품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각 영화 상영 후에는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된다. 관람객들은 감독과 직접 소통하며 작품의 제작 과정과 영화 속 메시지, 장애 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예정이다. /이유빈 기자

# 광양청년꿈터 「과냥청년 꿈터뷰」, 청년의 이야기 담은 소통 콘텐츠 운영

광양청년꿈터(센터장 배혜금)가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담은 청년 퍼스널 브랜딩 프로젝트 「과냥청년 꿈터뷰」를 운영하며 청년 간 공감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광양청년꿈터는 청년과 소통하며 꿈을 응원하기 위해 조성된 청년 공간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통해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과냥청년 꿈터뷰」는 광양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일과 관심사, 경험 등을 인터뷰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하는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소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도전 과정을 지역사회에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양청년꿈터는 올해 3월부터 「과냥청년 꿈터뷰」 참여자를 모집해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편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청년 작가·문화예술 강사·농부 등 각자의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6월 10일 공개된 여섯 번째 「과냥청년 꿈터뷰」에서는 김도혁 청년농부가 출연해 매일 농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전했다. 김도혁 청년농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농업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청년농부로서의 경험을 진솔하게 소개했다.

광양청년꿈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발굴해 지역 청년 간 공감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 곡성군-곡성지역자활센터, 기본소득 사용 촉진 위한 '이동점빵' 본격 운영

곡성군과 곡성지역자활센터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을 촉진하고 자활 참여자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면 마을마을을 시작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내 생활필수품 구매가 어려운 이른바 '식품 사막' 문제를 완화하고, 자활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동점빵은 라면, 휴지, 세제 등 생활필수품과 두부, 우유, 과일 등 신선식품을 차량에 싣고 곡성군 전역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운영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행복래미방과 연계된 마을을 방문하

고, 목요일에는 희망복지 이동서비스가 운영되는 마을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곡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의 생활필수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춘 생활물품 공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사용을 유도해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은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생활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라며 "자활 참여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사업단이 향후 자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 구례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최종 선정

전남 구례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구례군은 독창적인 LFB 순환경제 모델과 사업 추진 의지를 높게 평가받아 최종 선정된 7개 지자체에 포함됐다.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정에 따라 구례군민들은 신청 및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구례군은 지원금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 권역을 구분했다. 읍지역 주민은 읍면 전 지역 사용 가능하고, 면지역 주민은 면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구례군은 올해 초 자체 재원을 할

용해 군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 정부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와 군민 카드 가입 지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구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군은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등 제도 안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심선성 기자

NAJU 우리농가를 살리는 착한 소비!

오색마을 [나주시 쇼핑물]